

정치프리즘 /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당 완패 이후

〈서울시장 보선·총선·대선〉

야권 선거 그랜드 슬램이냐 위기 느낀 보수 재결집이냐

호남민심, 지지부진 야권통합 가속 기대

야당의 서울시장 선거, 내년 총선, 대선 그랜드 슬램이냐, 보수층 결집에 따른 보혁(保革) 전면전의 시작이다.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한나라당의 서울시가 패배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국 현대정치에서 선거마다 중요변곡점을 찍었던 광주·전남 민심도 우선 당장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 선거를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야권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져 민주당 등 야권이 승리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까지 견인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측이 주조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야권대통합 문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우선, 이번 주민투표에서 서울 민심은 민주당 등 야권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가능

수 없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만약 민주당 등 야권이 승리한다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독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 구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부동의 1위인 박전대표가 보수의 화신으로 낙인찍혀 박전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보열풍 속에 야권 전체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대의 관측도 있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권후보가 당선돼 급진적 진보바람이 불 경우 천정의 진동처럼 경제의 묘를 보여온 국민의 선택이 보수를 손들여 줄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고등방정식이 여야에 난무하는 셈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야권대통합도 급물살을 타지 않느냐는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대통합을 이루라는 여론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내일 개막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개회식 리허설 도중 고 순기정옹을 기리는 추모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연합뉴스

50일 남은 F1 열기 고조

교통대책·마케팅 성공 총력전
공연·방송 전국 개최 불 조성

박준영지사 전국시도지사협 회장 추대



권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 국회의원 16명, 시도지사 16명,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촉진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스티브 잡스, 애플 CEO 퇴진

미국 애플의 공동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56)가 일상적인 경영 업무에서 손을 떼고 뒷선으로 물러난다.

〈관련기사 5면〉

애플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티브 잡스가 CEO 직을 즉각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잡스의 뒤를 이어 애플의 경영을

맡을 후임 CEO로는 팀 쿠치고운

영책임자(COO)가 선임됐다. 잡스는 CEO직에서 물러나지만 이 사회 의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CEO직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잡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임으로 인해 그의 건강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갖추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적은 비에도 물빠짐이 안돼 걸기조차 힘들었던 주차장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태부족

사태를 빚으면서 원성이 자자했던 편의시설도 크게 보강했다. 특히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국지도 49호선’을 임시 개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버스전용차로와 가변차로를 활용한 셔틀버스를 최대한 운용, 지난해 극심했던 ‘교통대란’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다.

최근엔 주관방송사와 인기 아이돌 그룹을 활용한 전국적인 개최 불 조성과 F1 세일즈 마케팅 및 스폰서십

유치에도 적극적인데다, 지난해에 견줘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모터스포츠의 꽃’ F1은 연간 40만명의 관중에 TV 시청자 수만 6억명에 달하는 메이드급 이벤트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 전세계에서 열리는 19개 대회(라운드) 가운데 16번째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12만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암 서킷에서 개최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가 기다려온 중소형 타입의 공간 프리미엄

8월 26일 금요일 개관 11:00 Grand Open

최대 2.23m 광폭 밸코니

광주 용봉 엘리체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시
전매

광폭
밸코니

우수
학군

생활
문화

59㎡(27)/270세대

84㎡(36)/160세대

엘리체
용봉 엘리체

혁신 공간 종소형 실속 타입, 광폭 밸코니(최대 2.23m),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생활 문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어린이대공원 등 문화시설 밀집

쾌속 교통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IC, 용봉 IC, 순환도로 이용으로 시내 및 시외 진출입 용이

우수 학교 오지초등학교, 하백초등학교, 고려중학교, 용봉중학교, 고려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인접

시행 에스이엔씨유한화사 시장 (주)서진증권 건설 자회사 (주)에스엔에스비전 총일산업주식회사

59㎡ / 84㎡ 총 430세대 문의 062)573-4400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951-1번지 외 25필지 ■ 지역
지구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18,186.00㎡ ■ 건축면적 :
3,550.68㎡ ■ 연면적 : 57,808.58㎡ ■ 규모 : 지하 2층, 지상 17층
~ 22층 아파트 51개동 총 430세대 ■ 용도 : 공동주택 ■ 본 흥보동에 사용
된 이미지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 험자 등에 따
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흥보동에 표기된 타입별 면
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잘식되있습니다.



“나는
경품이다”
오픈기념 경품이벤트
1등: 삼성 3D TV 46인치-1명
2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1명
3등: 드럼세탁기-1명
4등: 노트북-1명
5등: 진공청소기-5명
6등: 선물상-10명
* 대박 1~8월 28일(일) 경품추첨
1+1 이벤트
* 대박 2~9월 8일(목) 당첨자 발표일 경품추첨
2 이벤트
* 대박 8~28일(금) 당첨자 발표일 경품추첨
고급세제 세트 및 라면 증정(선착순 300명)
(기간 : 8.26~8.28, 3일간)